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NIGO 콜라보레이션 ‘원바이펜폴즈’

펜폴즈, 원바이 펜폴즈 쉬라즈

Penfolds, One by Penfolds Shiraz

지역	호주 > 남호주		
포도품종	쉬라즈		
알코올	14.5%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8~20℃		
테이스팅 노트	짙은 퍼플 코어를 지닌 쉬라즈 와인으로 구운 고기와 후추, 그릴링된 비프, 소금에 절인 육류, 살라미, 올리브, 블랙 카다멈, 강황, 스모키한 파프리카, 향긋한 포르투갈의 향신료 아로마가 촘촘히 레이어링되어 있습니다. 관대하고 대담한 스타일로 달콤한 과일이 중심을 잡아주며 블랙 무화과, 블랙 체리, 푸딩, 바닐라 같은 스위트함이 균형을 맞춰줍니다. 미세한 탄닌이 구조감을 만들고 피니쉬는 훌륭하며 입 안 가득 풍부한 텍스처로 마무리됩니다.		
페어링 TIP	붉은육류/붉은살생선/단단한치즈/훈제, 염장음식/밀가루음식(피자, 파스타 외)		



제품설명



'One By Penfolds'는 '하나됨(Oneness)'의 개념을 기념하고자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다르고 독특함을 포용하면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공동체를 포함합니다.

휴먼메이드의 설립자 NIGO 와의 파트너십으로 디자인된 제품을 통해 새로운 룩으로 표현됩니다.

와이너리



호주 국보급 와인으로 꼽히는 펜폴즈(Penfolds)는 1844년 영국에서 호주로 이주한 크리스토퍼 로슨 펜폴즈(Cristopher Rawson Penfolds)가 치료 목적으로 와인을 처방하기 위해 와이너리를 건립하며 역사가 시작된다. 빈티지에 따른 와인 맛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특유의 멀티 리저널 블렌딩 기법 도입, 제품별 pH 도수 확인 등 호주 와인 역사의 한 획을 그으며 '그랜지(Grange)'를 비롯해 뛰어난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왔다.

펜폴즈의 대표 와인은 '그랜지(Grange)'로 전세계 와인 애호가들이 손꼽는 명주로 꼽힌다. 호주의 국가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으며 1951년 생산한 이래 지금까지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로버트 파커는 '그랜지'를 가리켜 "지구상의 가장 뛰어난 레드와인"이라 찬사를 쏟은 바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렌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누워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